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11)

이 정엽 목사

(달라스 뉴비전교회 / 214-534-7141)

4.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1)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16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하였다. 과연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체험하며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나의 신분과 특권과 도달할 목적지와 미래를 알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하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았는가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6-27) 라고 하였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독특하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였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정하시고,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로 하신 것이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리킴을 발견하게 된다. 골로새서 3:10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을 닮은 피조물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을 가리킨다. 에베소서 4:24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따라...지으심을 받은”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중심으로 즐거워하며 섬길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상태와 수준으로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사람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창 1:26)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창 1:28).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요, 사람이 지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창세기 2:15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였다. 창세기 2:19-20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고 하였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것들을 다스리려면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

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범죄하기 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신지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범죄하기 전의 사람의 원래 상태와 수준이었다.